

절터 123곳
불상 87구
석탑 7기

경주남산 문화재 465건중 42건만 관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첫 조사

경주 남산에는 모두 1백23개소의 절터를 비롯하여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 등 총 4백65건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42건만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4백20여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남산 문화재 순례길을 5개로 나눠 정비할 것과 자세한 성보안내판 설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근 발간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Ⅲ-동남산 사지조사보고서>는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Ⅰ-탑 및 탑재조사보고서>(92년),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Ⅱ-서남산 사지조사보고서>(97년)와 함께 광복이후 처음으로 간행된 경주남산 불적에 대한 종합 조사보고서의 완결판. 남산에 산재해 있는 절터와 불상 석탑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이 보고서 세 편이 완결됨으로써 남산 불적의 연구 보존 및 복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Ⅲ>은 87년부터 89년까지 3년에 걸쳐 정밀조사된 경주 동남산 소재 절터 38개소와 서남산 불교유적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던 서남산 북쪽 절터 6개소를 포함한 21개 계곡 44개 절터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산에 남아있는 절터는 서남산에 비해 적지만 부처골의 감실여래좌상, 미륵굴의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봉화골의 철불암 등 남산을 대표하는 불상들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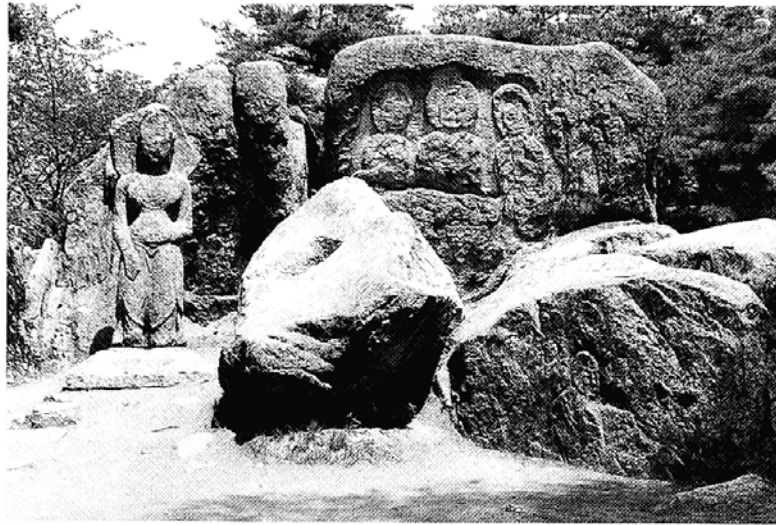
순례길 정비·성보안내판 설치 급선무

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는 동남산지역 조사내용 외에도 불상, 탑재 및 절터에서 출토된 와전류 등 절터관련 유물에 대한 설명과 절터의 내력을 알려주는 민간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 절터와 건물 탐 등에 대한 도면과 도판을 수록하고 있는데다가 석탑 추정복원도도 실고 있어 향후 복원정비에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조유진문화재연구소장은 "세계문화유산 등 록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보고 남산이 방치·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자료가 단위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물론 향후 남산 보존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경주 남산의 불적은 123개소의 절터를 비롯 총 465건에 이른다 지정문화재 42건만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주 남산의 탑골 제1사지 사반불암.



김익홍



박찬수



허길문



전연호



박현수



김광열

불자미술인 6명 인천 가톨릭대서 강의

불교전통 미술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 온 6명의 장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게 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3월부터 인천 가톨릭대학(총장 최기복) 전통종교미술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게 된 허길문(목조각) 박찬수(인간문화재·목조각) 김광열(석조각) 박현수(단청) 김익홍(불교미술론, 도금) 전연호(불화)씨. 이들은 불교미술대전, 전승공예대전 등을 통해 기량을 인정 받았으며 동국불교미술인회 등의 활동하고 있다. 인천 가톨릭대학은 지난해 신실한 전통종교미술학과의 실기시간을 이 분야 권위자에게 맡긴다는 방침아래 불교계의 대표적 예인들을 전격 초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실기에 중점을 두며 이들의 강의는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길문씨는 "이론보다는 실기에 중점을 두며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가톨릭계 대학이란 점을 감안, 불교미술에 대한 편협한 관념을 교정시키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opia.com)

동국대 대각전 '명가명인상' 수상

동국대(총장 송석구)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 법당(사지)이 11일 월간 <인테리어>가 제정한 제2회 '명가명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5개의 후보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각전 법당은 전통사찰의 분위기를 살리며 우리나라 고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불교미술은 포교의 좋은 방편"

동국불교미술인회 신임회장 이진형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 한국문화의 이끌어갈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미술의 중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진형씨(불교조각인 대표)는 올해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앞장서서 경제난으로 침체되어 있는 불교미술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올 봄 부처님오신날 봉축회원전으로 '부처님일대기'를 테마로 잡았으며 가을에는 불교미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형회장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으로 팀을 구성, 전국 지방교양대학에서 실기위주로 순회 불교미술 강좌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국불교미술인회와 회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 사이버 갤러리를 통한 불교미술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gstee@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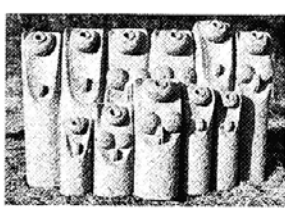
새해 첫달 전시회 초대장

청청스님 달마전 20~26일 경인미술관

대각사 청청스님이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1회 달마도 및 기(氣) 글씨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라 김생의 필법을 연구해온 청청스님이 그동안 쓴 '기(氣) 글씨' <사진>과 달마도 총 80여점이 전시된다.

"옛말에 기산심해(氣山心海)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은 산같이 마음은 바다같이 함으로써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중요함을 뜻하지요. 이번 전시회에 나온 글씨를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폐해진 정신으로 삶의 의미를 잃은 현대인 세계인들에게 기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님의 작품 설명도 곁들여 진다. (02)733-4448

박찬갑씨 조각전 31일까지 박영덕화랑



박찬갑씨(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의 조각개인전 '아리랑-해는 동에서 뜬다' <사진>가 31일까지 강남 박영덕화랑에서 열린다. 불교적 사유가 밀집된 마

음 탐구 시리즈에 몰두했으며 덴마크 등 외국에서의 우리 예술 알리기에도 힘써온 작가의 한층 원숙해진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번 조각전에서는 땅 하늘 인간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 삶의 원천을 찾아보고자 하는 조각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극도로 절제된 선과 상징만으로 인간의 간절한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박찬갑씨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국제조각공쿠르와 페루 국제조각 심포지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성자씨 개인전 31일까지 예술의전당



원로불자 화가 이성자씨(81)의 개인전이 3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제3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50여년간 프랑스에 머물며 동양적 사유를 담아낸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원(圓)을 변형시킨 기하학적 도형의 유화작품, 도자기, 대형 목판화 등 총 1백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극지로 가는 길' 연작시리즈는 시베리아의 만년설을 배경으로 원융회통을 전제로 한 분리와 통합을 의미하는 원의 다양한 모습과 궁극의 만남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연해주 보리소프카 절터 한-러공동 발굴조사"

"연해주 보리소프카 절터는 발해문화에서 차지하는 고구려의 비중을 확인시켜주는 발해 초기의 유적으로 러시아 학계의 발해 불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와 러시아 고고민족학연구소(소장 데레비안코)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메드베데프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리소프카 절터가 발해 초기 유적이라는 증거는 출토된 막새기와에서 드러난다. 이 가운데 심장모양의 불룩한 연꽃문양이 있고 거기에서 두 개의 나선형 무늬가 이어지는 것

은 보리소프카만의 독창적인 기와이고 다른 절터 출토물과 비슷한 형식의 기와들도 고식을 띠고 있다. 또 연해주의 여러 절터 가운데 보리소프카 만이 귀면와와 파편이 나타나는 것도 초기 유적의 증거라고 들고 있다.

보리소프카 절터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71년으로 1972년 발굴조사 후 26년만에 발표된 유일무이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보고서 제작을 위한 절터의 발굴과 원고 집필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맡았고 고구려연구회에서는 발굴보조비와 원고료를 지원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편입생 학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 학교연혁

- 1989.7.3 학교성립공고
-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8 불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 91.8 불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8 불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 94.11 불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3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불교과제
- 95.11 불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11 불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요주)
-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①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o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각학년 편입가능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

약학·한의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격증

정통 한의학(중의)·약학·침구학 면허를 중국 현지에서 취득

- ▶ 중국 최고 국립한의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안정성, 수익성, 장래성에서 최고의 전문직
- ▶ 부설:중국어 어학원(전세계 각 국민 교육중)
- ▶ 군입대 연기 가능

- 지원자격: 고교이상 동등 학력자(40세 미만) 전문대 이상자 전공불문
- 모집인원: 20명 이내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전문대·대학(2.5이상)

남경중의약대학 TEL 25-6798168, 6798171
한국연락상담처 TEL 02-511-2026~8